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김유민 국제협력센터 연구원
출장기간	2024.1.24.(수) - 2024.1.26.(금) [2박 3일]			
출장지	일본 도쿄			
출장목적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및 협력 강화			
경비부담	1인 경비 주최측 지원, 1인 경비 본원 부담 (₩ 1,426,800)			
주최기관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주최 국제세미나 참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협력 의제 발굴 일본 젠더 기관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해외국가(일본, 핀란드 등)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 출장

출장 복명서

2024. 2.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1

출장 개요

- 기간: 2024.1.24.(수) - 1.26.(금), (2박 3일)
- 장소: 일본 도쿄
- 출장자 및 역할: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김유민 연구원

<출장자 역할 분담표>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윤지소	연구위원	- 국제세미나 실시간 토론 - NWEC 및 현지 젠더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총괄 - NWEC과의 중장기 협력의제 발굴 - 국제세미나 참석을 통한 해외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김유민	연구원	- NWEC 및 현지 젠더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지원 - NWEC과의 중장기 협력의제 발굴 지원 - 국제세미나 참석을 통한 해외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 '성주류화와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강화' 국제세미나 주제발표(사전 녹화영상 재생) - 국제세미나 참가자 서면 질의응답(세미나 종료 후 진행)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참석이 불가하여, 사전에 녹화한 발표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함.

□ 출장배경:

- 가. 본원과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은 2006년 MOU 체결 이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음. 코로나19로 국제 교류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Gender Training as a Tool for Achieving Global Gender Equality: Sharing Knowledge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이어서, 2023년에는 제67차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기관면담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나.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NWEC)은 다가오는 제68차 여성지위위원회(CSW)를 기념하여 '성주류화와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강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소식을 전달하며, 본원에 '대한민국의 성주류화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관련 경험'에 대한 주제발표를 요청해옴. 또한, 양 기관의 중장기 협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관 면담을 제안하였음.
- 다. 이에 본원의 연구진이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핀란드, 일본 등 해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성주류화 정책을 학습하였음. 나아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본 현지 젠더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본원의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음.

□ 출장목적:

- 가.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사전 녹화영상 재생)
- 나. 국제세미나 서면 질의응답 및 실시간 토론
-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협력의제 발굴

다. 일본 젠더 기관 관계자들과의 교류

라. 해외국가(일본, 핀란드 등)의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1/24 (수)	○ 출국: KE 2013 김포 16:20 ○ 도착: 하네다 18:35 도착 ○ 일본 하네다 공항 - 숙소 이동	김포 ⇒ 하네다
1/25 (목)	○ 회의 및 국제세미나 참석 -오전: 국제세미나 준비 및 토론자들과 회의 -점심: 네트워킹 오찬 -오후: 국제세미나 참석 -저녁: NWEC 원장 및 토론자들과의 만찬	Kazan Kaikan 빌딩
1/26 (금)	○ 회의 참석 -오전: KWDI-NWEC 간담회 -오후: 공항 이동 ○ 입국: KE2104 하네다 19:50 ○ 도착: 김포 18:35 도착	하네다 ⇒ 김포

2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글로벌 세미나

□ 일시: 2024.1.25.(목), 14:00~16:00

□ 세부일정

프로그램	
14:00-14:10	개회 ▪ Natsuko Hagiwara,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 원장
14:10-14:40	기조연설 ▪ The Mechanism for Promoting Gender-Equal Society in Finland Silla Kakkola, The Coalition of Finnish Women's Associations (NYTKIS) 사무총장
14:40-15:30	패널 토론 ▪ Digital Transformation, Labor Market, and Gender Gap in Korea (녹화영상 재생) 김중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ey Findings from Research Project on Low-Income Single Mothers & Youth to Promote Financial Health in Japan Kazuho Tsuchiya 일본 JPO 시니어 프로그램코디네이터 ▪ Gender Responsive Poverty Measures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tsuko Miwa,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HURIGHTS OSAKA) 센터장
15:3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Kazuho Tsuchiya 일본 JPO 시니어 프로그램코디네이터 ▪ Atsuko Miwa HURIGHTS OSAKA 센터장

개회

□ **Natsuko Hagiwara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개회사를 시작함.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성평등 실현에 제한이 많았음.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성평등과 관련된 성과와 실적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음.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핀란드,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성주류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발표요약

- 동 행사는 1명의 기조연설과 3개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성주류화와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강화에 대해 해당 국가 및 기관의 정책과 사례를 논의함.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조연설자인 Silla Kakkola NYTKIS 사무총장**은 “핀란드의 성평등을 위한 매커니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먼저, 핀란드의 성평등 매커니즘 소개에 앞서 핀란드 여성 권리와 관련된 역사를 소개함. 1901년 여성에 대학 입학 허용을 시작으로 1926년에는 첫 여성 장관이 임명되고, 2000년에는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역사 등을 소개함. 이어서 핀란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강력한 헌법 및 평등법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육아 휴직 관련 법률, 동의에 기반한 강간 정의가 포함된 형법, 보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이야기함. 법률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장관,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내 성평등 부서, 성평등 위원회, 평등을 위한 독립적인 옴부즈맨 등을 지속적인 핀란드 성평등 매커니즘 확립의 주요 요소라고 강조함. 또한 핀란드는 외교정책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NGO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NGO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여성들 역시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줌. 핀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연금 차이 또한 존

재함. 이어서 발표자는 본인이 소속된 NYTKIS라는 단체에 대한 소개를 진행함. 본 단체는 1988년에 설립되어 핀란드의 모든 여성단체를 위한 포괄적인 조직으로 12개의 회원 단체가 있음.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NGO가 다수이고, 이들은 성평등 실현, 세계 평화 유지, 글로벌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행 평등법과 공공기관의 여성할당제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95년 보편적 보육제도 수립에 기여함. 또한 2020년 정치권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고, 2023년에 발표된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 법안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등 NYTKIS의 성과를 소개하였고 향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해당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국가, 커뮤니티의 협력을 강조하며 발표를 맺음.

□ **첫 번째 발표자인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그리고 성 격차(Digital Transformation, Labor Market, and Gender Gap in Korea)”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과 섹터별 변화, 고용에서의 변화와 성 격차, 한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함. 디지털 전환은 프로세스 변환, 비즈니스 모델 변환, 도메인 변환, 문화/조직 내 디지털 변화의 4가지 틀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음. 현재 한국의 산업 내 디지털 전환은 변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높은 투자 비용, 불확실성, 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이어서 국내 산업별 디지털 변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금융통신, 과학 기술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가 상승하였음. 향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 분야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영업사원, 기술자, 단순 작업자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함. 성 격차(gender gap)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업무의 유연성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서 여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저숙련 직종에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자동화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부재할 경우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심화시킬 것임을 강조함. 또한 디지털 전환은 여성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지만,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함.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과 디지털 교육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KOWIN(한국여성국제네트워크), STEM 분야 여성 연례 회의, 공학 및 화학 분야 여성 임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청년 과학자 캠프 등 여성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 **두 번째 발표자인 Kazuho Tsuchiya 일본 JPO 시니어 프로그램코디네이터**는 “한부모가정(싱글맘)과 저소득청년들의 재무건강을 위한 연구(Key Findings from Research Project on Low Income Single Mothers & Youth to Promote Financial Health in Japan)” 발표를 통해 싱글맘과 청년들의 재무 건강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소개함. 특히 발표는 싱글맘의 재정적 상황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부재에 집중하였음. 연구 결과, 싱글맘의 경우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 저임금,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저축이 불가능하여 싱글맘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또다시 부족한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지원과 생활보조금으로는 저임금 및 대출과 같은 악순

환을 끊기 어려움. 또한 그들이 겪는 주거 예산 관리, 사회적 관계 및 공적 지원에 대한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의 부재를 지적함.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어, 빈곤이 사회구조와 관련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종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다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정책적 공백을 인지하여 이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 관리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

- **마지막 발표자인 Atsuko Miwa HURIGHTS OSAKA 센터장**은 “성인지적 빈곤 대책 및 제도적 강화(Gender-Responsive Poverty Measures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이후 여성화된 빈곤과 여성 고용, 돌봄 경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 코로나 이후 구조적 불평등은 여성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줌.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특히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 직종과 비정규직의 70%를 이루는 여성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돌봄 경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돌봄 경제란 돌봄을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경제 정책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돌봄 노동과 관련한 5Rs Framework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1) 돌봄 노동의 가치 인식(Recognition), 2) 여성과 여아들이 수행하는 무급 돌봄 노동의 불균형 감소(Reduction), 3) 돌봄의 책임을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재분배(Redistribution), 4) 양질의 새로운 돌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상(Reward), 5) 유급 및 무급 간병인과 간병 수혜자의 대표성(Representation)을 반영한 정책 규정. “No One Left Behind”라는 원칙에 맞춰 더 이상 소외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돌봄 경제에 만연한 구조적 성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공공재로 인정해야 하며 적절한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급 돌봄 노동을 줄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표를 끝맺음.

토론요약

- **기조연설자인 Silla Kakkola NYTKIS 사무총장**은 옴부즈맨의 중요성과 역할,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함. 첫 번째로 옴부즈맨은 정부가 성평등과 관련된 법률에 기반하여 정책들을 잘 이행해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유·무상으로 제공됨. 특히 보육시설은 법으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발표에서 소개한 여성의 경제 참여 문제 이외에 한국이 직면한 다른 성평등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지소 KWDI 국제협력센터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답함. 또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것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함.

- 끝으로 모든 토론자들에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 요소에 대해 질문하였음. **Atsuko Miwa HURIGHTS 센터장**은 발표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미 젠더화된 사회구조 안에서 젠더중립적인 정책들은 사실상 성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돌봄 경제를 강조하여 여성들의 노동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어서 **Kazuho Tsuchiya 일본 JPO 시니어 프로그램코디네이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지원정책의 공백에 의해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계속해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공백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며 모든 취약계층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Miwa 센터장의 말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다음으로 **윤지소 KWDI 국제협력센터장**은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 및 메커니즘을 고안하기에 앞서, 성평등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전정부적 노력과 더불어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될 필요를 이야기함. 마지막으로 **Silla Kakkola NYTKIS 사무총장**은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을 강조함. 효과적인 정책과 메커니즘, 법안이 제안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끝맺음.



국제세미나 진행 사진

3

업무협력 회의

1. 핀란드, 일본 젠더 기관 관계자들과의 업무협력 회의

- 일시: 2024.1.25.(목), 10:30~12: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김유민 연구원

- **일본 국립여성교육센터 참가자:** Miho Watanabe NWEC 국제교류센터장, Silla Kakkola NYTKIS 사무총장, Kazuho Tsuchiya 일본 JPO 시니어 프로그램코디네이터, Atsuko Miwa HURIGHTS OSAKA 센터장

□ 주요내용

- 국제 세미나에 앞서 연사들이 모여 성주류화와 젠더 관점을 반영한 한국, 일본, 핀란드의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또한, 일본과 핀란드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일본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양육자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정책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함.
- 또한 국제 세미나의 발표 주제 중 하나인 ‘재무건강(financial health)’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함. 재정 안정성, 경제에 대한 지식,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접근 기회 등이 포함된 개념임을 소개함. 핀란드의 경우 여성들의 재무 건강이 좋지 않은데, 65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이 높고, 편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상당함.

2. 일본 오차노미즈대학 신기영 교수와의 간담회

□ **일시:** 2024.1.25.(목), 20:00~21: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김유민 연구원
-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 신기영 교수

□ 주요내용

-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Institute for Gender Studies, IGS)는 1975년 여성연구 국립문서보관소로 시작하여 1986년 학술연구에 초점을 둔 여성연구소로 재조직됨. 이후 1996년 젠더관점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며 현 젠더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됨.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국제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연구 결과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함. 최근 개최한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으로는 위기 시대에서의 젠더 이론화와 가르침(2024년 1월 온라인), 국제 정치에서의 섹슈얼리티와 폭력(2023년 12월 온라인), 정치적 백래시 시대에서의 재생산 정의(2022년 12월 온라인), 중국과 홍콩 퀴어 여성의 국제적 이동(2022년 12월, 오차노미즈대학), 정체성과 미디어 이론의 교차점(2022년 7월, 온라인), 필리핀, 마르코스의 귀환이 갖는 의미(2022년 6월, 온라인) 등이 있음.
-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오차노미즈 대학의 최근 근황 및 중점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함.

3.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NWEC)과의 업무 협력 회의

□ **일시:** 2024.1.26.(금), 10:00~12: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김유민 연구원
- **UNFPA 참가자:** Natsuko Hagiwara NWEK 원장, Miho Watanabe 국제교류센터장, Yamada Namiko 국제교류센터 담당자, Chihiro Wada 국제교류센터 담당자

□ 주요내용

- 양 기관 역사 및 최근 기관 현황에 대해 소개함. NWEC은 약 50여명의 교육 전문가, 연구자,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내각부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연구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양국의 여성역량강화 의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 사례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및 시사점

○ 국제 세미나

-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NWEC)은 제68차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성주류화와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강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기획하였음. 구체적으로, 세미나에는 핀란드, 한국, 일본의 주제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국의 성주류화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관련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였음.
- 특히 성평등 달성과 관련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에 따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돌봄 노동의 가치 확대,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정부-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확대, 데이터 수집 및 축적 등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일본 젠더기관들과의 협력기반 구축

- 출장을 통해 일본의 성평등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 본원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달성함. 먼저, 본원과 2006년 MOU를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해온 NWEC은 현재 문무과학성 산하 기관으로 50여 명의 교육 전문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교육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총리실 내각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전체적으로 조직이 확대 및 개편되며 연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오차노미즈대학의 젠더연구소는 일본 내 여성학 연구를 이끌어온 대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젠더연구소 이외에도 2015년 개소한 오차노미즈 글로벌리더십 연구소, 2022년 개소한 오차노미즈 젠더 이노베이션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원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